

# 한국 채란양계산업의 변천과 발전전망

민 경 호  
대한제당 무지개사료과장

우리나라 양계산업은 “농자천하지대본”의 국가 기간 산업인 농업에 포함되어 농가 호당 10수 이내의 사육규모로 부업형태를 유지해 왔다.

1900년대에 접어들어 일본 제국주의 침략이 시작되면서 점차 개량된 닭이 보급되기 시작해 1910년 근교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전국적인 사육규모는 280만수에 달했다.

당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권을 장악하

고 있던 조선 총독부는 나고야코친종, 플리머드록종, 백색레그혼종, 로드아일랜드종(1921년 이후) 등을 장려 품종으로 하였다. 권업모범장과 한국중앙농회 등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였고, 생산품은 대부분 일본으로 넘어갔으며 일부만 대도시에 공급되었다. 이 수탈기간 중에는 사육수수가 1940년 670만수를 정점으로 해방직후인 1945년에는 151만수로 격감하였다.

표1. 한국양계산업의 발전개요

1901~1945년	1945~1960년 수난 및 부흥기	1961~1970년 기반조성 및 성장기
1. 개량종 보급시작 2. 주품목 : 나고야 코친종 플리머드록종 백색레그혼종 로드아일랜드종 3. 사육수수 1910년 : 2,800수 1945년 : 1,516수	1. 품종은 거의 비슷 2. 원종계 : 1년간 능력검정후 선발 보급종계 : 원종계 생산의 1년생닭 3. EEA(원조기관)로부터 종란 20만개 지원 -수입 문호 개방- 4. 잡종강세의 교잡종 작출	1. 계통간 근친교배 교잡종 도입 (수원)(1963) 2. 사육수수 1960년 : 1,200만수 1970년 : 2,300만수 3. 한국가금협회 설립 4. 경제능력 검정사업(1965) 5. 배합사료산업 기반조성

해방이후엔 일정하(日政下)의 장려품종을 그대로 이어받아 백색레그혼종, 나고야종, 로드아일랜드종, 플리머드록종 등 4품종을 수원 농사시험장 축산부에서 보유토록 하였다. 원종계는 1년간 산란능력검정을 실시해서 성적이 우수한 것만을 선발, 보유토록 하고, 원종계에서 생산된 1년생 닭을 보급종계로 하였다.

6·25가 끝날 무렵인 1952년 5월, 정부는 농업기술원 축산부와 성환 축산시험장 지원을 통합하여 축산기술원으로 발족, 외국의 원조기관인 EEA로부터 종란 20만개를 지원받아 종계개량에 뜻이 있는 이들에게 보급, 수입번호를 개방하였다. 특히 서울대 농대에서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잡종강세를 이용한 계통간 교잡종을 작출하는데 필요한 기초계인 미네소타 근친계를 수입하기도 하였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시행되면서, 정부에서도 사양관리와 신기술 습득을 위해 업계와 학자가 주축이 된 한국가금협회에 많은 지원을 하게 되었다.

1963년 최초로 계통간 근친교배 교잡종(4원)이 도입되어 점차로 도입수수가 증대되기 시작하자 배합사료의 필요성도 함께 대두되어 사료공장 설립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종계도입이 늘어나면서 1970년에는 2,300만수로 증식했으며 과거의 백색레그혼종, 나고야종 등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었다.

4원 교잡종을 개량·발전시키면서 사육농가에 종계개량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1965년부터는 가금협회(현 대한양계협회)로 하여금 경제능력 검정사업을 실시하게 하였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하였다. 1967년에는 사료산업이 활발해지면서 1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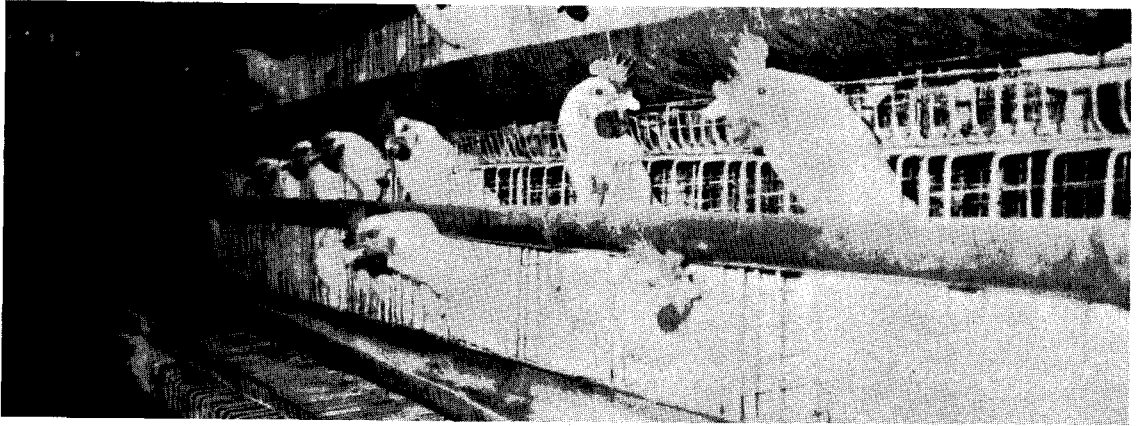
〈표2〉 1910~45년 당시 사육수수변화

(단위 : 천수)

연도	사육 수수
1910	2,800
1920	6,000
1930	6,150
1940	6,700
1945	1,516

1971~현재

종계수급과 국산종계개발	종계능력검정과 부화업	유통구조와 가격
1. 수원교잡종 도입으로 생산 수요·사료소비 급증 2. 74~77년, 종계수입 일시 중단 (국산 종계개발 착수) 3. 78년, 수입재개(종계) 4. 축사와 종축원이 국산종계개발 주력(1983)	1. 종계능력검정(양계협회) - 1965 2. 종계업-등록제 부화업-허가제(1977)	1. 서구식 도계장 설립(1969) 2.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도입·소비급증(1980) 3. 위생육 유통개선(1982) 4. 유통구조개선 노력(현대)



공장이 신설, 총 51개 공장이 가동되었다.

이처럼 종계수입이 활발해지면서 이때 부화업자도 급격히 증가되고 수요도 급증되어 사료곡물의 수입도 괄목할만하게 증가되었다. 한편, 생산성이 우월한 4원 교잡종형 종계가 확산됨에 따라 수시로 과잉 생산에 의한 가격등락이 심화되면서 양계농가를 도산의 위기로까지 몰고가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에서는 종계 수급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이 범위 내에서 도입물량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4원 교잡종형 종계의 경우 육용계(PS)는 경제수명이 1년, 산란계는 18개월에 불과해서 이들 종계는 매년 많은 물량을 도입,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외환사정이 여의치 못한 당시의 경우엔 방관만 할 수 없어 1974년 하반기부터 77년까지 수입을 일시 중단하고 국산종계 개발을 시도한 바 있다. 이 또한 단기간 종자개발 확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78년에 다시 수입을 재개, 지극히 필요한 물량만 도입하도록 하고 축산시험장과 국립종축원이 83년부터 장기계획으로 국산종계 개발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한편, 국민소득과 식생활 문제가 향상되면서 양계산물의 수요가 급증추세를 보였다. 정부는 가격안정에 역점을 두고 발전시켜야 함에도 일부 업자의 비협조로 정확한 수급동향 파악이 불가피하게 되자 1977년에는 축산법을 개정함에 따라 종계업을

등록제로 하고 부화업을 허가제로 전환하였으나 아직도 정확한 수급동향 파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969년에는 국내 최초로 서구식 도계장이 설립되었다. 1977년에는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근거로 한 대도시 중심의 위생육 유통을 실시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러다가 1980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유입되면서 소비량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후 1982년에 축산진흥기금을 지원, 본격적인 위생육 유통개선이 시작되면서 도계산업도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내시장에 대한 수급조절 장치의 미흡으로 가격안정책에는 많은 불안정 요인을 지니고 있게 되었다. 1979년 축산불황 이후 축협이 자기소유의 비축시설(냉동창고)을 보유하여 다소의 수급조절기능을 갖추고는 있으나 점차 발전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계란의 경우는 더욱 어려워 수요와 생산이 급증하면서 대규모 중간상이 나타나 이들의 가격조작으로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불이익을 안겨주어 왔다. 계란의 중간마진 과다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상품적 가치는 증대시키고 소비자의 이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유통개선책으로 G·P센터나 난가공공장 등의 설치 운영을 도입, 연구·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